

【일반논문】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군부 위상 변화 연구\*

김태구 (동국대학교)

### 국문요약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당·정·군 직책 중에서 군사기구인 최고사령관 직위에 최우선으로 추대되었다. 자연적 후계구도의 승계 외중에 혼란 차단을 위하여 군 직책부터 신속히 이어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20대 지도자로서 과연 70, 80대의 원로 지휘관들을 장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국제사회가 관심과 걱정으로 바라본 과정이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군에 대한 당 권위의 복원으로 방향을 잡고 장, 단기적으로 군을 통제하여 나갔다. 그 첫 단계로 우선 리영호 총참모장을 제거하여 무장력을 지휘하는 총참모부에 대한 통제력을 확립하였고, 이어 외형상 군 대표인 인민무력상을 거의 1년 단위로 교체해 가면서 지배력을 확고히 하였다. 마침내 2017년 말부터는 국가보위성과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였고, 호위사령부까지 정리함으로써 군부에 대한 장악을 완성하였으며 로동당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는 사회주의 당중심 체제를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바탕 위에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북-미,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섰으며, 북한 군부는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라는 기득권적 잇권의 침해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현상 없이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체제에 순응하고 있다. 즉 북한 정규군 지휘관들은 핵·미사일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군에 비해 중요성이 감소되면서도 현재까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약하고 있고, 여타의 반대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군은 다시금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군 본연의 교육과 훈련에 충실할 것이며, 대북제재 여파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

---

\* 귀중한 지도를 하여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 깊은 고마움 표해 드립니다.

하여 계속해서 국가시설 공사 등에 동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제어: 군부위상 약화, 총참모부, 인민무력성, 총정치국, 순응, 경제지원

## I. 서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부터 시작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대미 관계 개선 시도는 2019년 말 현재, 긴장이 다시 고조될 우려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12월 3일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대북 ‘무력사용’ 카드를 거론하였으며,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군 총참모장등 군부 고위간부들만을 대동하고 백두산에 올랐다. 이어 북한 당국은 12월 7일에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이러한 시험은 12월 13일에도 반복되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고 하자, 북한의 리수용<sup>1)</sup>과 김영철은 즉각 반발하면서 “우리의 자존과 우리의 힘, 미국에 대한 우리의 분노만은 빼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미국의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는 남한에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였으나 그는 빈손으로 출국하였고,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처럼 동북아에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으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각국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북-미 관계의 핵심을 북한의 비핵화 추진으로, 그리고 남-북 관계의 중점을 군사적 긴장완화로 초점을 지

---

1) 『조선중앙통신』, 2019년 12월 9일.

향할 경우, 비핵화와 긴장완화 두 사안은 북한 군부의 기득권적 잇권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현안으로 볼 수 있다. 즉 비핵화는 핵 개발자들과 미사일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개인과 국가 차원의 최대 과업이 문혀 버릴 수 있는 것이고,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는 군부의 영역이 축소되고 군의 존재감이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 관계 개선 조치를 실천 할 때에 군부가 일부 반대하여 교류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에 군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현 시점의 군부 활동을 단면적으로 고찰하기 보다는 시간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고 이후 최고사령관에 올라 제7차 당대회에서 국무위원장에 등극하였으며 2019년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까지 군부 인사와 군사 기구, 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선군정치에서 파생한 비대 군부가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력에 의하여 정치, 군사적으로 영향력이 축소되었고 김 위원장의 지도에 순응하고 있다는 점으로 귀결시키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의 첫 공식행사인 장례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운구인원 7명 중 4명의 군 인사들에 둘러 싸여서 20대에 과연 정치적 영향력 보유 집단인 군부를 장악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장, 단기적으로 군부 통제를 3가지 방향에서 추진하였다.

첫째는 군사기구 우선 장악으로, 2009년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되었고, 이후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등극 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군정치의 상징기구였던 국방위원회 위원을 충원하지 않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을 증원하여 선당후군(先黨後軍)으로 방향을 정하였다. 이어 김정일 위

원장 사망 뒤에는 약 2주 만에 지휘권 직위의 최고사령관 직위를 최우선으로 장악 하였다. 둘째는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군 인사 교체를 추진하였는데 병력과 무기를 운용하는 리영호 총참모장, 현영철 인민무력상들을 공포정치 수준으로 숙청 하였다. 셋째는 2017년부터 정권의 보위 역할을 수행하는 공안 및 감시기구에 대한 검열을 추진하여, 정규군 인사 숙청에 앞장섰던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원홍을 필두로 총정치국장 황병서 및 호위사령부, 보위국 주요 직위자들을 교체시켰다. 특히 군부를 대변했던 총정치국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탈락하는 이례적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세대교체를 넘어, 선군정치의 흔적을 지우고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켜, 김정은 위원장 개인과 당 중심의 통치력 강화, 정상국가 차원으로의 군 위치를 정립하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북한군 인사의 대외 활동은 현격히 축소되었다.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와 김여정 특사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시에 군부 인물은 제외 되었으며, 광명성절 금수산 태양궁전 방문에서는 최초로 군부 인사 참배가 배제되었다. 또한 9.19 합의에 따른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군부가 집단적 반기를 드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비교적 순조롭게 GP 철거 등이 완료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앞으로도 북한 군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국내외 통치에 복종할 것으로 보이며, 대북제재 여파로 인한 경제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김 위원장의 지시에 의거, 건설 공사 등에 동원되는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여기어 진다.

## II. 군사기구의 무게중심 이동과 위상 약화

### 1. 김위원장 집권 초기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영향력 강화

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회의는 2010년 개정된 당규약에서 <당의 군사 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 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sup>2)</sup>고 하여 최고 군사기관으로 격상되었다. 즉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전에는 국방사업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국방위원회가 높은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역할을 당중앙군사위원회가 대체하였고, 특히 ‘당적으로 지도한다’고 하여, 당이 군사정책을 추진하는 본래의 모습을 정착시켰다.

〈표 1〉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확대회의) 개최

일 시	주 요 의 제	비 고
2013.2.2	· 3차 핵실험 강행 의지 표출 및 대북 군사적 시위에 대한 반발과 자위권 천명 *2013.2.12 제3차 핵 실험	· 키리졸브 훈련 기간
2013.8.25	· 군 혁명무력의 전투력 상승과 나라의 방위력 수호를 위한 실천적 문제와 조직문제 토의	·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기간
2014.3.16	·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 싸움준비와 전투력 강화, 조직문제 토의	· 키리졸브 훈련 기간
2014.4.28	· 인민군대를 강화, 발전시키는 문제와 조직문제 토의	· 박근혜-오바마 정상 회담(4.25)

2) 북한연구소 편, 『북한총람: 2003~2010』 (서울: 북한연구소, 2010), p. 940.

2015.2.23	· 인민군대의 기구체계를 정간화. 임의 시각에 최고사령부의 전략적 기도를 실현가능하도록 기구체계 개편의 방향과 방도 제시	· 김정일 위원장 3년 탈상 후, 군부 개편
2015.8.20	· 북한군, 확성기 타격 거론하며 연천지역에 포격 도발 → 남측에서 K-9 자주포로 30발 대응 사격 실시. 북한은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준전시 선포	· 2015.8.4의 목함지뢰 사건 이후, 남한에서 대북 방송 시작
2018.5.17	· 현 시기 인민군대의 실태를 종합 분석한데 기초하여 군을 군사정치적으로 강화하고, 방위 사업 전반에서 개선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 토의	· 6.12 북미 정상회담 전 개최
2019.9.6	· 태풍피해방지투쟁에서 인민군대가 주력 - 무력성적인 피해방지대책지휘부와 군중, 군단급 단위 피해방지 전투지휘조들을 조직하고 예방과 복구사업을 신속히 지휘할데 대하여 지시 · 박정천 육군대장을 총참모장으로 임명 ·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지휘성원들 해임 및 조동	· 태풍 13호 북상 대비 강구 · 총참모장 임명
2019.12.22	· 자위적 국방력 강화 위한 핵심사안 토의 - 미사일 부대 확대 개편 등 추정 · 부대배치 변경등 지시 - 남한 F-35기 전력화에 대비한 시설 이동 및 지하화 가능성 · 중앙군사위원 및 주요 군 직위자 교체	· ‘새로운 길’ 모색 연말 시한 전, 자위력 강화

출처: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참고 재구성.

특히 제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등장하여, 군사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국방위원회가 아닌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관할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반면 국방위원회에서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부터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명록과 부위원장 오극렬, 리용무, 인민보안부장 주상성이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례적 현상이 발생하였다.<sup>3)</sup> 더더욱

3) 정성장, 『중국과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비교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11), pp. 45~46.

2012년 4월에 개최된 제4차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는 최룡해 총정치국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리명수 인민보안부장의 경우 국방위원회에 입성하였으나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은 국방위원회에서 소환되었다. 여기에 군령권을 보유한 총참모장까지도 국방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특히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의 국방위원회 위원은 12명이었지만<sup>4)</sup> 2014년 당시는 9명으로 위원이 감소하였다.

무엇보다도 3차 당대표자회 이후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들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보다 먼저 호명되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곧 국방위원회의 위상 약화로 비추게 되었다. 특히 2010년 10월 26일, 중국 고위 군사대표단과 북한 국방위원회 대표단간의 회담에서, 리영호 총참모장은 국방위원회의 어떠한 직책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수석대표로 참가하였다. 즉 당시 그의 직책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으로 회의를 주재한 것이었다.<sup>5)</sup>

4) 김은영,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주요내용,” 『KDI 경제리뷰』 (2009), pp. 56~58.

“위원장: 김정일(유임)

제1부위원장: 조명록(유임)

부위원장: 김영춘(유임), 리용무(유임), 오극렬(유임)

위원: 전병호(유임), 김일철(유임), 백세봉(유임), 장성택(신임), 주상성(신임), 우동측(신임), 주구창(신임), 김정각(신임).”

5) 『조선중앙통신』, 2010년 10월 26일. “회담에서 쌍방은 조, 중 두 나라 군대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표 2〉 2014년 당중앙군사위원회 · 국방위원회 소속 구성원 비교

당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원수)		김정은(원수)
부위원장	최룡해(차수)	현영철(상장)	최룡해(차수), 리용무(차수), 오극렬(대장)
위원	김영춘(차수) 주규창(상장) 리병철(대장) 김영철(대장) 최경성(소장) 장정남(대장) 변인선(대장) 황병서(차수)	김원홍(대장) 김경옥(대장) 최부일(대장) 윤정린(대장) 김락겸(상장) 서홍찬(상장) 김명식(상장) 리영길(대장)	장정남(대장)      박도춘(대장) 김원홍(대장)      최부일(대장) 조춘룡

출처: 통일부 정세분석국, 『북한 주요기관·단체 인명록(2014)』 (서울: 통일부, 2014), p. 10, 45.

이처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위원수도 확대하고 당규약까지 개정하면서 권한을 확대한 것은 기존 선군정치 시기에 확대되었던 국방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당에서 군사부분을 관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즉 정부기관인 국방위원회보다는 당 기구인 당중앙군사위원회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이다.

## 2. 국무위원회 창설과 군 역할 축소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무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이때부터 자신은 대외적으로 국무위원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무위원회는 명칭에서 보듯이 ‘국방(defence)’이라는 군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States Affairs Commission)임을 보여주고 있다. 역할은 국정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대·내외 정책을 심의한다. 물론



이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에는 국방과 관련하여 <국방건설사업을 비롯한 국가 중요정책을 토의하고 결정한다.>는 군사적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선군혁명노선’을 삭제하였고, 중요한 점은 국무위원회는 평시가 아닌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sup>6)</sup>

〈표 3〉 국방위원회와 국무위원회의 비교

구 분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회
정의	국가주권의 최고 국방기관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기관
임무 및 권한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	국방건설 사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정책 토의 및 결정
임면권	국방부문 중요 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	국가 중요 간부의 임명 또는 해임
전시	전시와 평시 동일	전시에 국가방위위원회 조직

\* 출처: 이상숙,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의 변화: 김정일 위원장 시대와 김정은 위원장 시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선군정치와 북한사회의 지속성과 변화 전망』 (서울: 동국대학교, 2018), p. 130.

2019년 4월, 최룡해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직에 임명되어 국무위원들인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을 이끌게 되었다. 이는 곧 국무위원회가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국가방위 기구라기보다는 이제 대외협상 등의 외교업무를 포함한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기구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대외협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여기

<sup>6)</sup> 이호령, “김정은 시대의 4차레 사회주의 헌법 수정과 군사력,” 『대외학술활동시리즈 2019-39』 (서울: 국방연구원, 2019), p. 8.

어 진다.<sup>7)</sup>

이러한 국무위원회 인사 변동에서도 군부의 입지가 줄어든 것이 명확하였는데, 과거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부위원장직에 있었지만,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단순히 위원에 머물렀다. 그외 노광철 인민무력상, 정경택 국가보위상, 최부일 인민보안상은 위원회에 포함되었지만 이들은 기념 사진 촬영 때에 김정은 위원장 바로 옆에 있던 것이 아니고 모두 뒤편에 위치하여 있었다. 당시 리영길 전 총참모장의 경우, 북한군 무장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지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회에서 제외되었다.<sup>8)</sup> 이는 같은 군 인사라 하더라도 공안, 감시 기능의 군부를 중시하고, 정규 야전군은 여전히 핵심권력 기구에서 밀려나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국무위원회 명단(최고인민회의의 14기 2차 회의)

이름	직책	겸직	이름	직책	겸직
김정은	위원장	당위원장, 최고사령관	태종수	위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제1부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용호	위원	외무상
박봉주	부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위원	총정치국장
김재룡	위원	내각 총리	노광철	위원	인민무력상
리만건	위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위원	국가보위상
리수용	위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부일	위원	인민보안상
김영철	위원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선희	위원	외무성 제1부상

출처: 『로동신문』, 2019년 9월 7일 참고, 재구성

7) 정성장,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제1차 회의 평가,” 『세종논평』, 2019-14, (2019), pp. 1~2.

8) 총참모장은 김정일 위원장 집권 시기의 국방위원회에서도 위원 명단에 올리지 못하였다.

### 3.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 폐지 및 민간인사 진출 확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위원회에 비해 당 기구로서 최고군사기구의 영향력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같은 당내 부서 중에서도 당중앙위원회와 정부 측의 국무위원회에 비해 위상이 약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2010년 9월 28일 제 3차 당대표자회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올랐던 김위원장은 그로부터 6년이 경과한 뒤인 2016년 5월 6일의 제7차 당대회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폐지하였다. 이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의도대로 군부를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히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부위원장 직위를 유지한다면 원로급 군 인사를 임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군부의 입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에 아예 군부 발언권을 축소시키고자 자신의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당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 수도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19명이었지만 7차 당 대회 이후에는 12명으로 축소시켰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는 무엇보다도 내각 수장인 박봉주 전 총리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총리의 당중앙군사위원회 포함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북한군 고위급 탈북인사의 경우, 이 시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핵개발 완성이 임박한 시점으로서 총리로 하여금 내각에서도 핵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핵무력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한 것, 대북제재 이후 군이 직영하는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군에 대한 군수지원 사업, 즉 후방보장사업을 원활하게 협조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고 있다.<sup>9)</sup>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핵-경제 개발 병진정책을 추진하면서, 군도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군 인력을 경제분야로 전

<sup>9)</sup> 북한이탈주민 진술, 2017년 6월 16일. “북한군 고위 군관 출신으로서 지상군 작전사령부 특강후 개인 질의 응답시 진술.”

〈표 5〉 북한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구성원 변화

	제3차 당대표자회 (2010.9.28)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회의 (2014.4.28)	제7차 당대회 (2016.5.9)	당 중앙군사 위원회 제7기 1차 확대회의 (2018.5.17)	중앙위원회 7기 4차 전원회의 (2019.4.10)
위원장	김정일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김정은
부위원장	김정은 리영호	황병서 리영길			
위원	김영춘 김정각 김명국 김경옥 김원홍 정명도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주규창 최상려 최경성 우동측 장성택 최룡해	장정남 변인선 김원홍 김경옥 김명식 리병철 최부일 김영철 윤정린 최경성 김락겸 서홍찬 박정천 조경철 홍영철	황병서 박봉주 박영식 리명수 김영철 리만건 김원홍 최부일 김경옥 리영길 서홍찬	황병서 박봉주 김수길 로광철 리영길 장길성 리병철 최부일 정경택 서홍찬 리명수	리만건 김조국 태종수 김재룡 김수길 로광철 리영길 장길성 정경택 박수일 서홍찬 최부일
인원	19	18	12	12	14

출처: 정성장 외, 『김정은 위원장정권의 대내전략과 대외관계』 (성남: 세종연구소, 2014), p. 32; 이승렬,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내용과 특징,” 『이슈와 논점』 (2016), p. 3;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참고 재구성.

환하기 위해서는 총리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박봉주 총리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부각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주장은 금년도 중앙위원회 7기 4차 회의에서 박봉주 후임 총리인 김재룡 총리도 계속해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포함된 사실에서 설득력을 더해준다.

10) 『연합뉴스』, 2016년 5월 10일.

이 외에도 당중앙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는 리만건 조직지도부장 김 조국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태종수 군수공업부장,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포함되어 민간 인사가 5명이나 포진하게 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군수분야 전문가들이 가세하였다는 점으로서 이들은 군사장비를 더욱 발전된 첨단장비로 개발하는 역할 수행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군수공업의 민수장비 개발에도<sup>11)</sup> 일정 역할을 부여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 4.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 ‘부’에서 ‘성’으로 격하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는 인민무력부가 인민무력성으로 전환되었다. 일반적으로 성(省)은 내각의 한 부서로 인식된다. 그렇다고 인민무력부와 국가안전보위부가 내각 산하기구로 편성되었다고 보는 시각은 무리이다. 군의 수장들을 총리가 지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북한 내에서 사업하며 고위급과 접촉이 많은 관계자는 군이 내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명칭을 바꾼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sup>12)</sup>

국가안전보위부의 경우도 같은 범주로 해석이 가능하다. 2016년 12월 18일 조선중앙TV에서는 국가안전보위부를 국가보위성으로 호칭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명칭변화의 시점이 언제인지는 불명확하지만 2016년 6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개편할 시기에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명칭을 모두 ‘성’으로 교체

<sup>11)</sup> 홍민 외,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과 정세전망,” 『KINU Insight 2019 No 1』 (서울: 통일연구원, 2019), p. 8.

<sup>12)</sup> 대북사업가 진술, 2017년 9월 14일. “북한 내 평화자동차 등 사업을 진행하는 CEO분과 주한 미대사관 간담회후 개인 질의응답시 진술.”

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곧 김정은 위원장이 비대해진 군부와 공안기구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무위원회를 여타 일반국가의 ‘국무부서’와 같은 뜻으로 명칭 부여하였듯이 ‘군사적’ 의미가 내포되는 기구들을 행정적 의미의 ‘성’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군사주의적 국가’가 아닌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도<sup>13)</sup> 볼 수 있다.

### Ⅲ. 군부교체를 통한 최고지도자, 당 중심의 권한 강화

#### 1. 군 최고 실권자, 총참모장 경질

김정은 위원장은 후계구도 연착륙을 추진하면서 일단은 선군정치의 중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존의 정규군 지휘관들부터 교체하였다. 이는 본능적으로 무장력을 보유한 지휘관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신변불안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한 20대 젊은 지도자이지만, 강단 있게 지휘관들을 교체하여 권력자의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새로운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을 것이다.

그 첫 표적은 총참모장 리영호였다. 총참모부는 북한군의 지상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을 통합 지휘하여 무력을 운용하는 군령 부서이다. 그 수장인 리영호는 2012년 7월 15일, 이례적으로 소집된 조선로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신병’을 이유로 전격 해임되었다. 2012년 7월 17일 조선중

<sup>13)</sup> 북한이탈주민 진술, 2017년 6월 16일. “북한군 고위 군관 출신으로서 지상군 작전사령부 특강후 개인 질의 응답시 진술.”

양통신에서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 회의에서는 리영호 동지를 신병관계로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로동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하였다.<sup>14)</sup>

<표 6>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총참모장 교체

이름	임명	해임
리영호	· 2009.2, 제3차 당대표자회	· 외화벌이 사업 내각 이전 반대 · 김정은 위원장권위에 대한 도전
현영철	· 2012.7.16	· 군대내 불명예 사건에 대한 집단 책임.
김격식	· 2013.5 임명	· 2013. 8 쿠바 방문 시 과음실언 및 뇌물수수
리영길	· 2013.8	· 2015. 9월 평양 아파트 단지를 군인이 구입한 비리 관련 해임
리명수	· 2016.2.21(확인)	· 2018.5.17, 세대교체(리명수 84세)
리영길	· 2018.5.17 임명(추정)	
박정천	· 2019.9.6 임명	

출처: 정성장, 『김정은 위원장시대 북한군 핵심요직의 파워엘리트 변동 평가』, 세종정책브리핑 2015-4, (2015), pp. 14~15 참고, 재구성.

리영호에 이어 현영철이 총참모장에 올랐는 바, 그는 전방군단장이 아닌 북-중 국경 지역을 담당하는 후방 8군단장이었다. 2012년 7월 차수로 진급하였으나, 3개월 만인 10월에는 대장으로 강등되었다. 이듬해 2013년 5월에는 총참모장에서 해임되어 5군단장으로 좌천되었다가<sup>15)</sup> 다시 인민무력부장에 올랐으나 끝내 총살당하였다. 그 뒤를 이어 2013년 이미 총참모장을 역임했던 리영길이 다시 총참모장직에 올랐는데 그는 작전국

14) 『조선중앙통신』, 2012년 7월 16일.

15) 『중앙일보』, 2017년 2월 28일.

장에서 승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6)</sup> 그리고 현재는 포병 전문가인 박정천이 담당하고 있는데,<sup>17)</sup> 이는 단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대규모 방사포와 기존의 장사정포를 새로이 조합하여 강력한 화력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총참모부는 북한 군 체제상 총정치국에 의해 늘상 감시를 받았고, 그 외에도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에는 핵·미사일 전문가들의 부상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축소되어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부대 현장 방문 시, 실제 전투력 수준을 직접 측정하였는데 이러한 검열 부담은 군이 여타의 부분에 신경 쓸 틈이 없이 군 본연의 전투력 강화에 집중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2. 인민무력상 교체와 군 통제권 확립

인민무력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기에 오진우와 최광이 인민무력부장 겸 총정치국장을 겸임하면서 총참모부를 지휘체계 내에 두는 등, 군의 행정과 정치사업을 총괄하는 군부의 대표기관이었다. 그러나 1997년 2월, 최광이 사망할 즈음에는 동구의 멸망, 한-소 수교 등의 대외관계 악화와 고난의 행군 등의 혼란 시기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을 맡길 만한 측근이 없음을 직시하고, 인민무력부가 보유했던 군부 지휘권을 자신이 직접 관장하였다. 이어 인민무력부에서 총정치국과 총참모부를 분리·독립시켰다. 총정치국은 군에 대한 정치 지도·사찰·인사를, 총참모부는 부대훈련 등 군사작전을, 인민무력부는 후방총국으로서 행정지원과 보급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세분화하여 김정일 위원장의 군내 직할

16) 『연합뉴스』, 2018년 7월 27일.

17) 『조선중앙통신』, 2019년 9월 6일.



통제를 강화한 것이었다.<sup>18)</sup> 동시에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높여 주면서 상대적으로 인민무력부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광 사후 1년 7개월간의 공백기가 지난 뒤, 해군사령관 출신의 김일철을 인민무력부장에 임명하였는데 이 역시 방대한 지상군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여기어 진다.<sup>19)</sup>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에는 총참모부에게 작전국, 정찰국, 장비국을 비롯한 전투국들과 현역 군단에 대한 지휘권을 이양하였고, 따라서 인민무력부에는 후방총국, 대열보충국 등의 부차적인 군사보급지원 부서, 대외사업국과<sup>20)</sup> 같은 군사외교 분야, 보장사업 기구, 공사담당 부대들만이<sup>21)</sup> 잔류

18) 이승열, 『북한 엘리트 집단의 권력투쟁과 당조직지도부의 생존전략』 (대전: 국방정신전략원, 2017), p. 46.

19) 『중앙일보』, 2017년 1월 4일. “김정일은 최현·오진우·최광으로 이어졌던 ‘막강 권력’ 인민무력부장이 두려웠는지 해군에서 잔뼈가 굵은 김일철 해군사령관을 선택했다. 이로써 최광이 사망한 1997년 2월 이후 인민무력부장을 공석으로 뒀다가 1년 7개월 만에 그 자리를 채웠다.”

『조선중앙통신』, 2011년 7월 25일. “김정일 위원장 집권기의 해군 고위 인사로는 정명도 해군사령관과 오철산 해군사령부 정치위원을 들 수 있다. 정명도는 연평해전과 대청해전에서 패한 이후 천안함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정일의 해군사령부 시찰시 직접 격려를 받은 인물이다.”

전정환·송봉선·이영진·서유석, 『김정은 시대의 북한인물 따라가 보기』 (서울: 선인, 2018), p. 176. “오철산은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 전 호위총국장 오백룡의 차남으로서 해군사령부 정치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0) 2000년 9월의 조성태-김일철 제주도 국방장관 회담과 2007년 11월의 김장수-김일철 송전각 초대소 회담 등은 인민무력성이 대외적인 군사외교와 일부 대남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1) 오성길, 『선군정치-주체사회주의 생명선』 (평양: 평양출판사, 2003), p. 59.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인민군대가 사회주의 건설에서 선봉적 역할을 해 온 전례를 가지고 있다.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혁명적 구호를 높이 추켜 들고 사회주의 건설의 제일 어렵고 힘든 부문을 맡아 세인을 놀래 우는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 왔다. 대비날론 공장이 일떠서고 <지하공전>으로 일컫는 웅장화려한 평양 지하철도가 생겨 나고 <2세기 세계 7대 기적>의 하나로 손꼽는 서해갑문이 훌륭히 솟아 나게 된 것을 비

하게 되었으며 예하에 전투부대 없는 부서로 전락하게 되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 인민무력부장들을 대부분 임기 1년도 못 채운 채 교체하였다. 그러나 박영식 인민무력상부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박영식은 최초로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에서 발탁된 인사로서<sup>22)</sup> 야전형의 전임자들과는 달리 총정치국 경험에서 나오는 군부 인사 감시 능력을 토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 장악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무기개발과 보급을 관할하는 제2 경제위원장 출신으로 온건파로 분류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무력상을 교체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강경 군부를 교체하여 회담진행에 따른 군부의 불만을 사전에 진무하기 위한 것과, 전임 박영식이 대북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있다.<sup>23)</sup>

〈표 7〉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인민무력상 교체

이 름	임 명	해 임
김영춘	· 2009.2, 제3차 당대표자회	· 제4차 당대표자회 직전 해임
김정각	· 제4차 당대표자회 직전 임명	· 2012.10 해임(김일성군사 종합대학장 총장 임명)
김격식	· 2012.10 임명	· 2013.5 총참모장으로 임명되면서 해임
장정남	· 2013.5.13 임명	· 2014.6.5군단장으로 강등
현영철	· 2014.6. 임명	· 2015. 4, 처형
박영식	· 2015.5. 임명	· 2018.5.17.북-미 정상회담 전, 대북 제재 해당자 교체
노광철	· 2018.5.17 임명(추정)	

출처: 정성장, 『김정은 위원장시대 북한군 핵심요직의 파워엘리트 변동 평가』, 세종정책브리핑 2015-4, (2015), pp. 10-13 참고 재구성.

로하여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일어난 세계적인 사변과 기념비적 창조물들 마다에는 인민군대의 영웅적 위훈이 깃들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22) 『중앙일보』, 2017년 2월 17일. “인민무력부장 전 14.”

23) 『국민일보』, 2018년 6월 3일.

### 3. 군인사 교체 추진 부서, 수장 경질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집권 초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유사하게 군대와 작전에 익숙하지 못했기에 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등과 같은 감시기구의 역량을 중시하였다.<sup>24)</sup> 국가안전보위부장 직책은 당과 국가의 지도층을 비밀리에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보유한 직책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가장 먼저 직접 임무를 담당했던 부서이기도 하다.<sup>25)</sup> 그 이후 국가안전보위부장 직책은 김원홍이 이어 받았다.

2012년 4월, 국가안전보위부장에 발탁된 김원홍은<sup>26)</sup> 장성택 처형을 주동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보위에 적극 나섰지만, 동시에 권력중추인

<sup>24)</sup> 북한이탈주민 진술, 2017년 6월 16일. “북한군 고위 군관 출신으로서 지상군 작전사령부 특강후 개인 질의 응답시 진술.”

<sup>25)</sup> 오경섭, 『김정일 위원장과 김정은의 권력 승계 비교』, 세종정책 연구 2012-4 (서울: 세종연구소, 2012), pp. 27-28. “김정일 위원장은 2009년 3월 말 김정은을 대동하고 보위부 청사를 방문하여 <김정은 동지를 보위부장으로 받들어 일을 잘 해주기 바란다. 과거 나에게 그랬듯이 목숨으로 김정은 동지를 보위하라>고 지시하였고,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2009년 11월 중순 평양에서 접촉한 노동당의 고위급 당국자가 김정은을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으로 불렀다고 증언하였다. 광길섭, “저승사자 김원홍의 토사구팽 의미와 전망,” 『이슈 브리핑 17-04』 (서울: 국가안전전략연구원, 2017), pp. 1~6. “국가보위상은 전통적으로 백두혈족 김씨 일가가 직할해 왔으며, 예외적인 경우는 70-80년대 김병하, 이진수 2명뿐이었다.”

<sup>26)</sup> 김원홍은 2009년 2월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에 임명되어 김정은의 군부 엘리트 장악을 지원하게 되었다. 김원홍은 2009년 4월 14일, 인민군 대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2010년 9월 28일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직에도 임명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의 그의 이름이 김경옥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군사 담당 제1부부장 바로 다음에 호명된 것은 그가 김경옥의 지도 하에 총정치국에서 군부 엘리트들의 조직과 인사문제를 담당하고 있던 점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김원홍 총정치국 조직 부국장은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 위원장 바로 우측에 앉아 그의 최측근 인사임을 과시하였다.

로동당 조직지도부를 비롯한 곳곳에 다수의 적들을 양산하여, 그들로부터 포위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sup>27)</sup>

그의 행적 중에는 로동당 조직지도부 인물까지도 처단하는 사례가 있는 바, 2013년 6월 간부 인사를 담당하던 김근섭 조직지도부 간부부 부장이 황해도에 현실체험<sup>28)</sup> 내려갔을 시에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등 ‘비사회주의 현상’에 심각하게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씌워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지시를 받아 체포, 처형한 것이었다. 또한 국가안전보위부 내 김창섭 정치국장 등은 이전에 로동당 조직지도부에서 국가안전보위부로 자리를 옮긴 인물로서, 그 또한 퇴출당하였다. 즉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전에는 로동당 조직지도부와 권력투쟁을 벌릴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한 것이다.<sup>29)</sup>

이러한 국가안전보위부에게, 최룡해가 당 부위원장으로 복귀하자 김열의 창을 겨누었다.<sup>30)</sup> 그리하여 김원홍은 권한남용 및 비리, 태영호 공사 등 고위간부의 탈북 망명 문책 등으로 해임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이고 실제로는 권력기관 및 실세 측근들 간의 갈등, 암투 등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sup>31)</sup>

27) 광길섭, “저승사자 김원홍의 토사구팽(兎死拘烹) 의미와 전망,” pp. 1~6.

28) 통상 중앙당 간부들이 2~3년에 한번씩 3~6개월간 지방에 내려가 지방당의 실 상황을 체험하는 것.

29) 광길섭, “저승사자 김원홍의 토사구팽(兎死拘烹) 의미와 전망,” pp. 1~6.

30) 박영자,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p. 148~149. “김정은이가 김원홍이한테 힘을 콕 실어 줬는데다 보위부가 ‘조직지도부 사람들’까지 막 치는데..... 꼭 다물고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김정은이가 2014년도, 2015년도 오면서 정상적인 통치 방식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직지도부가 이때로다. 보위부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버르고 있던 참에 아마도 돌발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타이밍이 맞아 가지고. <한 번 해봐, 강력한 그루빠로> 이렇게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졌고, 조직지도부에서는 보위부가 조직지도부 사람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야 가자 강력한 그루빠로>.....”

이러한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 장악은 자신의 신변을 책임지는 호위사령부에게까지 예외가 없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호위사령부 제1국 직속 통신중대 간부가 대북방송을 청취한 것이 발각되어 당 조직지도부의 대대적인 검열이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호위사령부는 일주일 간 중앙당 조직지도부의 집중 검열을 받았고 이번 검열로 인해 당중앙위원회와 금수산기념궁전 호위를 맡았던 호위사령부의 간부들이 숙청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sup>32)</sup> 특히 “2018년 10월 20일 중앙당 조직지도부와 호위사령부 책임일꾼들에게 하달된 특별지시 내용에는 중앙당조직지도부가 호위사령부 검열사업을 집행하고 총화하는 데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적 처벌과 법적 처벌의 도수를 높이라는 내용이 있다.” 면서, “호위사령부 내에서 사상과 행동을 감시·통제하는 호위사령부 정치부장이 수백만 달러를 소지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이는 부정축재와 연계되어 숙청되었다는 내용이 있다.”<sup>33)</sup>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군 고위급 인사의 교체가 수차례 반복되는 와중에서도 호위 사령관 윤정린에 대한 언론 보도는 거의 출현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호위사령부는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가족의 신변 근접경호를 직접 담당하고 있어서, 가장 신뢰하는 기구이며 폐쇄적이고 보안에 투철하다. 김 위원장은 마침내 이러한 호위사령부에 대해서도 검열을 진행하여 집권한 이후 총참모부로부터 호위사령부까지 군부인사 교체의 일단락을 마무리하였다.

31) 곽길섭, “저승사자 김원홍의 토사구팽(兔死拘烹) 의미와 전망,” pp. 1~6.

32) 『자유아시아방송』, 2018년 11월 6일.

33) 『뉴스』, 2018년 12월 11일; 『중앙일보』, 2019년 2월 20일.

#### 4.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총정치국장 배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초기, 총참모장이나 인민무력상은 다수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등, 지위 유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총정치국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는데 이는 총정치국이 군부 내 간부들의 일상 활동을 감시하는 정권 보위의 핵심기구이기 때문이다.<sup>34)</sup>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의 초대 총정치국장에 임명된 최룡해<sup>35)</sup>는 군 출신이 아닌 당 청년동맹을 이끌었던 인물로서 이처럼 당 간부를 임명한 것은 선군정치 시기에 지나치게 확대된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sup>36)</sup> 그는 2013년 5월 22일, 북-중 관계가 소원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 특사로 중국을 방문하는 등 외교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sup>37)</sup>

2014년에는 최룡해의 뒤를 이어 황병서가 총정치국에 올랐다. 그 역시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에서 군부를 통제하는 군사담당 제1부부장의 직함을 수행한 경력이 있다. 즉 정통 야전 지휘관 출신이 아닌 당료(黨僚) 출신으로서 총정치국장에 오른 것이다.<sup>38)</sup>

34) 정성장·백학순·임을출·전영선, 『김정은 위원장 리더십 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17), p. 36.

35)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http://nkinfo.unikorea.go.kr/nkp/main/portalMain.do>.) “1950년생 최룡해는 항일 빨치산 김일성의 동지 최현의 아들이자 김일성종합대학 졸업 후 정치경제학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1비서, 황해북도 당 책임비서, 당중앙위원회 비서 등을 역임한 당 엘리트로서 2010년 9월 27일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김경희, 김경옥 등과 함께 대장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이후 최룡해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에 올랐다가 2014년 4월 총정치국장직에서 해임된 후 당중앙위원회 근로단체 비서를 담당하였다.”

36) 정성장, 『김정은 위원장 시대 북한군 핵심요직의 파워엘리트 변동 평가』, 세종정책브리핑 2015-4, (2015), p. 7.

37) 『한겨레신문』, 2013년 5월 22일.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이 되어서야 총정치국에 대한 주요인물 교체 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최룡해가 로동당 부위원장으로 복귀하자 당조 직지도부는 마침내 2017년 10월부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을 진행한 것 이다. 검열 배경에 대하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지는 ‘북한 내 처형이 증 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총정치국 소속 정치장교들의 부패 혐의에 따른 처 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sup>39)</sup> 그전까지 정치장교들의 비리 유형들이 전군 에서 표출되었는데, 특히 여군이 근무하는 부대의 경우, <입당 열쇠를 쥐고 있는 정치지도원들이 여군을 성폭행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처벌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 여군들이 불명예 제대를 당하 는 경우가 많았다>는 진술이 있다. 이처럼 정치위원들의 비행은 대체로 부대원들 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촉발되는데, 당원 입당을 미끼로 각 종 뇌물을 수수하는 것과, 일부는 지휘관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려는 월 권 행위도 있으며, 사적으로 휘하 군 가족들과도 부적절한 모습을 보여 부화처벌을 받는 경우 등도 나타났다.<sup>40)</sup> 또한 2017년 말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최전선 부대에서 사상적 해이함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 되었다.<sup>41)</sup> 결국 위와 같은 모든 비리들이 밝혀지면서 황병서는 막강했던 권력에서 실각하였다.<sup>42)</sup>

김정은 위원장 집권 전~후기에 총정치국장 계급은 차수였다. 즉 조명

38) 이후 그는 2014년 9월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2차 회의에서 전임자인 최룡해 가 맡았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직도 승계하였고, 2015년 2월의 당중앙 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직에도 선출되어 명실 공히 군 을 대표하게 되었다.

39) 『국방일보』, 2018년 1월 31일.

40) 북한이탈주민 진술, 2018년 7월 5일. “북한 4군단에서 방공포병 중대장을 역임 한 여군 상위 출신의 탈북자 진술 내용.”

41) 이러한 현상은 시기적으로 남한의 대북확성기 방송에 따른 영향이 실제로 유 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연합뉴스』, 2017년 11월 20일.

록, 황병서, 김정각은 차수였으나 현재의 김수길 총정치국장은 대장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임기면에서도 조명록 전 총정치국장은 재임 기간이 15년이었지만, 실제로 그는 종신이었고, 그의 후임은 1년 5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었다. 반면에 황병서 전 총정치국장은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4년에 불과했고, 김정각 전 총정치국장은 겨우 4개월의 단명이었다.

무엇보다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조명록과 최룡해, 황병서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군을 대표하여 당 최고기구의 핵심 위치에 자리매김하여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황병서 후임 김정각은 정치국 상무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하였고<sup>43)</sup> 그의 후임인 현 김수길 총정치국장도 정치국 위원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서열 하락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시 김수길 총정치국장, 로광철 인민무력상이 정치국 위원인 리수용 당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보다도 하위 위치에 서서 대기한 모습에서 증명되었다. 이제 총정치국장은 로동당 내부에서의 영향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이다.

이처럼 총정치국장 위상 약화는 정부측 기구에서도 유사하다. 2018년 4월 1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황병서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에서 해임하였다. 즉 황병서, 김기남, 리만건, 김원홍이 국무위원회에서 소환되고 김정각, 박광호, 태종수, 정경택이 새로운 국무위원회에 보선되었다. 관건은 황병서의 후임인 김정각 총정치국장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에 그쳤다는 사실이다.<sup>44)</sup> 즉 김정각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 회의 결정에서 일반 국무위원회에 한정된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그의 후임인 현 김수길 총정치국장 역시 국무위원회위원선에 머물러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43) 『조선중앙방송』, 2018년 2월 9일.

44) 『조선중앙방송』, 2018년 4월 12일.



〈표 8〉 총정치국장 위상 변화 비교

구 분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	
	조 명 록	최룡해, 황병서	김정각, 김수길
재임 기간	15년(1995-2010) : 실제로는 종신	최룡해: 2년 (2012-2014) 황병서: 4년 (2014-2018)	김정각: 4개월 (2018.2-2018.5) 김수길: 2018.5~현재
임명 전 근무 부서	공군사령부	최룡해: 당 청년동맹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김정각: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계급	차수	최룡해: 차수 황병서: 차수	김정각: 차수 김수길: 대장
당(黨) 직책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각: 정치국 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김수길: 정치국 후보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정(政) 직책	국방위원회 제1부부장.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최룡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황병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김정각: 국무위원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김수길: 국무위원(추정)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특사 활동	1) 2000.10. 워싱턴 클린턴 대통령과 북미 공동성명 채택 2) 2003.3. 베이징 차오강촨 국방부장과 다자간 북핵 문제 논의	최룡해: 2013 시진핑, 류원산과 북핵 실험 문제 논의 황병서: 2014 아시안 게임 폐막식 참석	없음.

출처: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참조, 작성.

에 올랐던 사례와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6.12 북·미 정상회담 및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시에도 군부에서는 총정치국장이 아닌 로광철 인민무력상이 김 위원장을 수행

하였다.<sup>45)</sup> 물론 군사외교는 인민무력성의 고유 업무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클린턴 대통령과 회담 한 것, 또한 2013년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2014년 10월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에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남한을 방문하여 국가원수급 경호를 받았던 사실과 매우 대비되는 현상이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선군시대의 군부세력 약화와 당 우위로의 복원 과정이 이제 실제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집권하면서 총참모장을 제거한 이후 인민무력성, 그리고 무소불위의 국가보안성 및 총정치국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여 군부통제를 완성하였다.

## IV. 군 규모 축소와 건설 지원 및 긴장완화 조치 순응

### 1. 실질적 군사복무 기간 단축

북한군 병력은 『국방백서 2018』에서 128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sup>46)</sup> 이러한 대규모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북한은 2014년에 징병남성은 11년, 지원여성은 7년으로 복무 기간을 1년 확대하였는데, 이는 2013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한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로 인하여, 5세 유아에서부터 17세 청소년까지는 학교에 재학하므로 입대 연령이 17세에서 18세로 상향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징집이 1년 늦어짐에 따라 제대로 인한 공백을

45) 『연합뉴스』, 2018년 6월 22일.

46) 국방부, “남북 군사력 현황,”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8), p. 244.

메우기 위하여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2016년 12월 24일, 인민무력성에서는 ‘제대방침’을 발표하여 복무기간을 10년 연한으로 종전과 같이 다시 1년을 단축시켰다. 즉 징병남성의 군복무를 기존 11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지원여성은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여 여군은 만 23세까지만 복무하도록 하고 있다.<sup>47)</sup>

입대 대상자들이 감소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이 이처럼 복무기간을 축소한 것은 곧 군 병력을 실제로 감축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100만을 초과 하는 병력 유지가 곤란한 상황 하에서 병력수를 감소하면, 군수 분야로 전이 되는 경제잉여를 사회로 전환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 경제개발 분야에 인력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혼기를 놓치지 않는 출산장려 정책이 내포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복무기간 1년 감축과 여군의 23세까지 만의 군사복무 조치로 인하여 약 10만여 명의 군병력이 감축될 것으로 볼 수 있다.<sup>48)</sup>

한편, 병력감축을 부추기는 또 다른 현상은 바로 젊은이들의 군사복무 기피이다. 초모 대상자들 중 권력층과 돈주들의 자녀들은 군 징집을 피하기 위하여 병원에 뇌물을 주고 결핵, 간염 등 신체검사표를 조작하여 군 입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편법으로 인해 군병력 감소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고 이는 곧 군 규모의 축소로 귀결된다.<sup>49)</sup>

## 2. 군 시설의 민용화 추진 및 군수공장의 민수품 생산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 중에서는 군용 시설들을 민수용으로 전환

47) 고재홍, “북한군 복무기간의 변화와 향후 전망,” 『INSS 전략보고』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p. 8.

48) 고재홍, “북한군 복무기간의 변화와 향후 전망,” p. 15.

49) 『중앙일보』, 2019년 3월 18일.

하거나 또는 아예 폐쇄하는 사례가 수시 보도되고 있다. 원산 갈마비행장의 경우, 한국전쟁 뒤 보수한 이래 군 공항으로 운용되었던 곳이었다. 북한 당국은 2013년 7월부터 개건공사를 시작하여 2015년 9월부터는 민간용 국제공항으로 전환시켰다. 이는 주변 명사십리 해변, 마식령 스키장과 연계한 관광특구 개발 전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sup>50)</sup>

그 외에도 김 위원장은 2018년 7월 17일 함경북도 중평리에 위치한 군 비행장을 방문하여 이 비행장을 폐쇄하고 북한 최초의 대규모 채소 온실농장 건설 계획을 밝혔는데, 당중앙군사위원회 결정으로 비행 연대를 이동배치시키고 그 자리에 함북 지역의 추위를 고려하여 온실농장을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사는 군대에서 완공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건설지휘부를 조직하여 설비제작과 자재 보급, 종자 확보 등도 책임지도록 하였다.<sup>51)</sup>

중평리 비행장을 폐쇄함과 동시에 비행 연대가 신 공항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 중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현재의 북한 경제여건상, 대규모인 비행연대를 건설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노후화되고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비행연대를 민수용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군사영역 축소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해군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김 위원장은 함정 건조소인 청진조선소<sup>52)</sup>를 현지지도하였고, <해군무력 강화를 위해 기동 및 화력능력이 뛰어난 전투함선을 건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대형 화물선과 여객선, 고기잡이배 등도 건조하여 수산업과 해상운수, 대외무

50) 『한겨레21』, 2018년 8월 2일.

51) 『노동신문』, 2018년 7월 18일.

52) 『자유아시아 방송』, 2015년 4월 20일. “청진조선소는 일제 강점기 청진조선철공소로 세워져 수산성 산하 선박수리공장으로 운영되다가, 주변의 일용분공장과 129호 공장이 통합되어 군수선박건조 공장으로 전환되었다.”

역과 국가방위력을 더욱 공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군함 조선소도 이제는 민수용 선박을 병행 건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2019년도 신년사 중 군수공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시되었다. <군수 공업 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 안고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당중앙위원회 군수 공업부는 군 장비와 생산, 개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건설기계,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 공업의 상당 부분을 민수분야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군은 이제 군사 장비의 현대화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술적 공통점이 있는 민수 장비도 생산하여야 하는 과제를 부여 받고 있다.

### 3.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순응

김정일 위원장 집권 시기인 2000년 7월에는 제 1차 남북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어 남북 철도연결사업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공사가 개시되지 못하였고 2002년 4월 방북한 임동원 특사가 경의선·동해선의 조속 연결을 재차 요청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고사령부 부사령관 리명수(당시 군 작전국장)를 불러 지시하면서도 “군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실토할 정도로<sup>53)</sup> 북한 군부는 남북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그후 2003년에야 철도 연결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다시 철도 시험운행 단계에서 북한 군부

53) 『연합뉴스』, 2018년 4월 22일.

의 반대로 철도운행이 연기되었다.

또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도 남측은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등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전면 재설정을 주장하면서 거부하였다. 2004년 6월 3일의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한 ‘전선지역 선전물 철거’의 경우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3단계 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측은 1단계 철거작업을 끝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이는 남북 화해를 위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북한 군부의 반대가 간단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에 비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추진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합의 이행의 경우, 대부분 순조롭게 이행되었다. 함정간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통화가 재개되었고<sup>54)</sup>, 또한 서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하여 2018년 7월 16일부터는 정상화되었다. 이어 2018년 8월 15일에는 동해지구에서도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당국간 유선 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 등 대부분의 기능이 정상 복구되었다. 한강하구에서의 항해 보장을 위한 군사조치의 경우도 하구에 대한 수로조사가 2018년 12월 9일 완료되었다.

내륙의 경우도, 2018년 11월 22일에 철원 지역의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을 위한 전술 도로 연결을 종료하였으며, 남측의 유해 발굴 활동이 이상 없이 진행 중에 있다. 특히 2018년 11월 20일 10개의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에 대한 폭파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를 상호 검증하는 과정에서는 남북 군 관계자가 우호적으로 편의를 제공하였다. 더더욱 남측은 2019년 4월 27일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을 개방하였고, 이어 2019년 6월 1일부터는 철원 구간도 개방하였는데 이에 대한 북한의 위협

<sup>54)</sup> 『서울신문』, 2018년 6월 19일.

적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9.19 평양선언의 군사분야 합의가 북한 군부의 반대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의 군부장악력은 확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 V. 결론

2011년 집권한 김정은 위원장은 선군정치의 비대한 군부에 대하여 새로운 통치자의 출현에 맞추어 군 기구와 군 인사에 대한 변화를 추진하였다. 우선적으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최고사령관직에 오른 김 위원장은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규약을 개정하고 인원을 확충하면서 군사 확대회의를 다수 개최하여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권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당중앙군사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군부가 민간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지원을 공유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국무위원회를 창설하여 국방위원회를 대체하였으며, 이러한 국무위원회에서는 군인사를 부위원장에서 배제시켜서 군의 영향력을 축소시켰다.

이와 병행하여 군 인사의 교체를 추진하여 최초 총참모장 리영호를 경질한 것을 필두로 인민무력상 등을 거의 1년 단위로 바꾸었고, 계속해서 공안 및 감시기구의 수장들인 김원홍, 황병서 등도 직책을 후임에게 인계하였다. 이러한 인사조치 결과 총정치국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탈락하고,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온건, 실무진으로 세대교체 되었다.

이제 김 위원장의 군부장악과정은 김수길 총정치국장이 김정은 위원장 최고사령관 추대 7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개최하면서 “군사정치 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 중앙에 보고 드리고 당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칼날 같은 기강이 확립 되었다”고 할 정도로 당에 의한 군 부통제가 명확히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군부장악과 핵무력 완성의 바탕 위에 2018년 북-미 관계 개선과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진하였다. 북-미 관계의 뇌 관인 비핵화는 북한 핵 개발자와 미사일 기술자들에게는 개인과 국가적 차원의 최대 과업이 묻혀버리게 될 지도 모르는 사안이며,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군의 영역이 축소되고 군 존재감이 반감되는 기득권적 잇권의 침해가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군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행동적 반기를 들고 있다는 진술, 보도는 들리지 않고 있다. 집권 이후부터 추진한 김 위원장의 군부 장악은 군부의 영향력 저하와 함수관계를 이루고 있고, 이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북-미 관계 개선의 비핵화 진전이 어느 수준에서 진행되던 간에, 또한 남-북간 긴장완화 조치가 단순한 충돌방지 단계를 넘어 군비축소 과정을 경과하여 진정한 평화 체제 구축에 이르는 그 어느 위치이던 간에 북한군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과 지시에 복종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의 북한군은 군 본연의 교육과 훈련에 충실할 것으로 여겨지며,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거 경제건설 분야 작업에 시·공간적으로 동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타의 사회기구 보다도 단일 지휘의 특성이 있고, 규모가 방대하며, 지금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군 인력은 마식령 스키장 공사, 청년발전소 건설, 평양 려명의 거리 조성 등 대규모 공사에서 건설 노력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대되어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는 경제건설 활동에 더욱더 충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 【참고문헌】

- 고재홍. “6.25 전쟁기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과 역할.” 『군사』 제53호.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4.
- . “북한군 복무기간의 변화와 향후 전망.” 『INSS 전략보고』.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 곽길섭. “저승사자 김원홍의 토사구팽 의미와 전망.” 『이슈 브리핑 17-04』. 서울: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2017.
- 김선호. “북한의 선군(先軍)정치와 북한군.” 서울: 한성대 한국혁신전략연구국방센터, 2014.
- 박영자.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손효중. “북한 노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평가와 함의.” 『주간국방논단』 제1716호. 서울: 국방연구원, 2018.
- 송경호. “김정일 위원장시대 군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책임연구보고서 2018』.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2008.
- 오경섭. 『김정일 위원장 위원장과 김정은의 권력승계 비교』. 세종정책 연구 2012-4. 서울: 세종연구소, 2012.
- . “김정은 위원장체제의 정상국가화는 가능한가?” 『통일의 길, 북한의 정상국가화』. 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14.
- 이상숙. “선군정치와 당·군 관계의 변화: 김정일 위원장 시대와 김정은 위원장시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선군정치와 북한사회의 지속성과 변화 전망』. 서울: 동국대학교, 2018.
- 이승렬.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내용과 특징.” 『이슈와 논점』.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2016.
- . 『북한 엘리트 집단의 권력투쟁과 당조직지도부의 생존전략』. 대전: 국방정신전략원, 2017.
- 이윤걸. 『김정일 위원장의 유서와 김정은의 미래』. 서울: 비전원, 2012.
- 이준혁·김보미. “북한 당중앙군사위 제7기 제1차 확대회의와 향후 북한군의 역할.” 『이슈브리핑 18-17』.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8.
- 이호령. “김정은 시대의 4차례 사회주의 헌법 수정과 군사력.” 『대외학술활동시리

- 즈 2019-39』. 서울: 국방연구원, 2019.
- 전정환·송봉선·이영진·서유석. 『김정은 시대의 북한인물 따라가 보기』. 서울: 선인, 2018.
- 정성장·백학순·임을출·전영선. 『김정은 위원장리더십 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17.
- 정성장. “김정일 시대 북한 국방위원회의 위상·역할·엘리트.” 세종정책연구 제6권 1호. 성남: 세종연구소, 2010.
- . “북한군 총정치국의 위상 및 역할과 권력승계 문제.” 세종정책연구 2013-8. 성남: 세종연구소, 2013.
- . “김정은 위원장시대 북한군 핵심요직의 파워엘리트 변동 평가.” 세종정책브리핑 2015-4. 성남: 세종연구소, 2015.
- 조남훈. “북한 군사경제의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6.
- KBS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제작팀. 『누가 북한을 움직이는가?』. 고양: 가나출판사, 2018.

## A Study on the Change of Military Status since Kim Jeong Un took power

Kim, Tae-Ku (Dongguk University)

### Abstract

After Kim Jeong Il's death, Kim Jong-Un was given top supreme commander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among party, political and military. He quickly took over his top military position to prevent confusion amid the succession of Political Power. Moreover, doubts about whether the 20-something leader can take control of military commanders in their 70s and 80s were a proces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iewed with interest and concern.

Despite such concerns, Kim Jong-Un took a turn toward restoring the party's authority over the military and went out of control in the long and short term. As a first step, he established control over the general staff of the armed forces by removing Lee Young-ho, the chief of the General Staff, and then solidified control over the Ministry of People's Armed Forces, an outward-looking military representative organization, by replacing the head of the army on a yearly basis. He finally carried out inspections of the Nation Security Department and the General Political Bureau, even the Guards Command from the end of 2017. Finally he can consolidate the socialist Party-centered system in which state affairs were run by the Korean

Worker's Party.

Now, North Korea's military appears to have complied with Kim Jong-Un's rule, and its regular military commanders have shown a commitment to Kim Jong-Un's loyalty to him, despite his reduced importance compared to the Strategic Forces in charge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Accordingly, no matter where the North Korea-U.S. relations improvement and tension-reducing measur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which Kim Jong-Un has been pushing for since 2018, the North Korean military is expected to comply with Kim Jong-Un's decision and order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North Korean military will remain faithful to the military's original education training and will continue to be mobilized for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facilities to cope with the worsening economic difficulties in the wake of the North Korean Sanctions.

Keywords: Weakening the North Korean military status, Director of General political bureau, Obedience, Economic development assistant

김태구(Kim, Tae-Ku)

---

석·박사를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취득하였다.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북한 정치, 외교, 경제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Weakening the Influence of General Political Bureau and Building the Predominant Party System in the Kim Jeong-Eun Regime(Ewha Institute of Unification Studies, JPU)” 등이 있다.